

# 아시아 명문 '로스쿨' 을 꿈꾼다

부부가 함께 동아시아 법률교육 센터와 문화센터의 꿈을 펼쳐나간다. 화제의 부부는 19일 경기 고양시 내유동에서 '아시아 로스쿨'로 불리는 국제법률경영대학원개교하는 유병화 총장(56).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운영해온 '김내현화랑'을 국제법률경영대학원 개교에 맞춰 이 학교 부지 안으로 옮겨온 유 총장의 부인 김내현씨(51).

고양시에 국제법률경영대학원 세우는 유병화씨

부인 김내현씨는 청담동서 화랑 옮겨와



19일 개교하는 경기 고양시 내유동 국제법률경영대학원 앞에 선 유병화(왼쪽) 김내현씨 부부.

### 동아시아 유명대사 76명 선발

유 총장은 최근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한국 고려대, 중국 베이징(北京)대와 정파(政大), 인도네시아의 인도네시아대, 캄보디아의 라오스국립대, 베트남의 베트남국립대와 호치민시립대, 미얀마의 양곤대, 필리핀의 아테네오 데 마닐라 로스쿨 등 동아시아 각국 유명대학의 법대 졸업생 76명을 신입생으로 선발했다.

정규 2년 과정의 대학원 코스를 받게 될 신입생들은 영어를 공용어로 통하는 동아시아 각국의 법률과 국제법을 공부한다. 학비가 없으며 입학생 전원에게 기숙사 시설도 무료 제공한다.

73년부터 80년까지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또 80년부터 고려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아시아 각국을 돌며 그 공법한 현실을 목격했던 그는 아시아의 인재들을 키우기 위한 이 일에 뜻을 두고 하나하나 실천해나갔다. 96년 개인 재산을 털고 독자개발의 도움을 받아 학교 부지 4만평을 매입한 데 이어 2년의 공사 끝에 최근 건물을 완공, 뜻을 이루게 된 것. 그는 지난달 고려대 법대 교수를

그만두고 이 대학원의 총장에 취임했다.

국제법률경영대학원은 또 미국 메릴랜드주에 부지를 확보하고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미국식 로스쿨 건립도 계획하고 있다. 국제법률경영대학원에서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미국으로 건너가 3년 과정의 로스쿨에 입학,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유 총장은 "국제법률경영대학원

은 21세기 아시아 지역을 이끌어갈 젊은 법학도들이 모여 각국의 제도적 차이와 국제법적 기준을 이해함으로써 아시아와 세계의 미래를 위한 화합의 기초를 마련하는 뜻에서 설립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총장은 재원 마련을 위해 몇몇 기업의 후원을 받고 있으며 1학기 등록금 500만원을 받는 정원의 50명의 최고위 경영자과정도 설립했다. 앞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개발도상국 초청 연수 등 외부 교육프로그램도 대항할 계획이다. 또 아시아 각국 법학도들이 수업을 겸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국제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아시아 각국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East Asia Law Review'라는 영자 전문지를 펴낼 구상도 하고 있다.



CA)의 개발도상국 초청 연수 등 외부 교육프로그램도 대항할 계획이다. 또 아시아 각국 법학도들이 수업을 겸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국제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아시아 각국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East Asia Law Review'라는 영자 전문지를 펴낼 구상도 하고 있다.

### 17일부터 현대목판화展

한편 부인 김씨는 화랑 이전 기념전으로 '아시아 로스쿨'에 걸맞은 한중일 현대목판화전을 17일부터 4월8일까지 개최한다. 한국의 김형태, 김봉태, 김상규, 일본의 구로사키 아카라(黒崎彰), 고바야시 게이세이(小林敬生), 가와이 세이이코(河内政幸), 중국의 장민제(張敏杰), 리엔펑(李彦鵬), 탕우펑(滕雨峰) 등의 작품이 전시된다.

김씨는 "국제법률경영대학원 주변에 동아시아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문화공간이 한두개 좁은 있어야겠다는 생각에서 화랑을 옮겨게 됐다"고 말했다.

〈고양=송명인기자〉  
pising@donga.com

### '티베트 佛畫' 日 순회전 한빛문화재단

한빛문화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티베트 불교미술품 80여점이 일본 나미에에 나간다. '탕카의 세계-티베트 불교 미술전'이라는 이름으로 이번 주말부터 내년 1월까지 10개월간 도쿄 교토 등 5개 도시 순회전에 들어간다. 탕카는 티베트 불화를 일컫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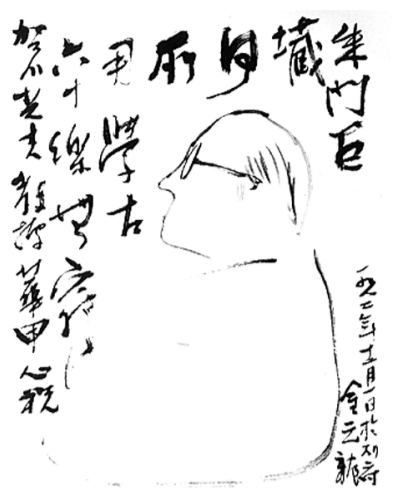
전시일정은 17일부터 5월6일까지 도쿄 고대오리엔트박물관, 5월12일부터 7월1일까지 후쿠오카 아시아미술관, 7월7일부터 7월29일까지 도야마 도카무라 후쿠사도 재단 전시관 '명상(冥想)의 향(鄉)', 8월4일부터 9월2일까지 오카야마 오리엔트 미술관, 11월15일부터 2002년 1월8일까지 교토 문화박물관.

만다라와 비슷한 탕카 70여점, 불상 8점, '티베트 사자의 사'와 같은 불경 4점 등 총 80여점이 출품된다.

티베트 불화의 특징은 농염한 색채, 빈틈없이 정밀한 묘사, 호사스러운 의복, 섬세한 복식도안 등 전체적으로 화려하고 웅장하다. 특히 티베트 불교의 밀교적 특성이 반영돼 관능미가 묻어있는 작품도 적지 않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탕카 1300여점을 소장하고 있는 한빛문화재단은 이번 일본 순회전을 계기로 소장품들을 소개하는 '탕카의 예술' 3권을 발간했다. 02-2287-2992~6

〈이광표기자〉  
kpllee@donga.com



가가와 미쓰오  
▲동아일보 사진  
삼불 김일룡이 1983년 가가와의 화관을 축하하기 위해 그려준 초상화.

## 국내 학계 "가가와교수는 결백"

### 최근 자살 日고고학계 원로 유적날조 의혹에 죽음 택해

### "판단 실수였을 것" 지배적

최근 자살한 일본 고고학계의 원로이자 베히르(베르)대 명예교수인 가가와 미쓰오(賀川光夫·1923~2001). 그는 자신이 발굴했던 구석기유적에 대해 날조 의혹이 제기되자 결백을 보여주려 자살을 택했다. 그가 남긴 유서엔 '날조라는 주장에 대해 죽음을 향의한다'고 적혀 있었다. 그는 정말로 유적을 날조했을까?

아니라는 것이 정설. 특히 국내 학자들이 그의 결백을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가가와와는 일본에서 가장 양심적인 고고학자로 알려져 있다.

논란이 됐던 유적은 가가와가 1962년 발굴했던 오이다(大分)현 히지리다케(聖巖) 동굴 유적. 이곳에선 후기 구석기시대(3만년 전~1만2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뼈와 석기가 출토됐다.

그러나 1999년 이곳에 대한 재발굴이 이뤄지면서 신석기시대인 조몽시대의 석기가 섞여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다가 최근 주간지 '슈칸분순(週刊文春)'이 유적 날조 의혹을 제기하자 결백히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유적 날조'가 아니라 '판단 실수'였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견부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그 유적의 연대가 후기 구석기보다 내려간 신석기 시대일 가능성은 있다. 연구수준이나 과학적 연대측정 기술이 지금보다 훨씬 떨어졌던 39년 전에 발굴한 것이라서 그런 정도의 실수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판단의 착오이지 날조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백구 경북대 교수도 "1962년은 일본에서도 조몽시대의 존재가 확인되기 전"이라며 "그의 판단 실수이거나 아니면 당시 일본 고고학계의 한계까지 조각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가가와와 한국 학자들도 우호적이었다. 특히 삼불 김일룡 선생과도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비슷한 연배인데다 안경을 쓰고 머리가 벗겨져 외모까지 흡사했다. 삼불이 가가와와 화관 기념논총에 그의 초상화를 그려 주었음 정도다.

〈이광표기자〉  
kpllee@donga.com

# '천년의 문' 건립 물건너가나

정부가 새천년 기념 국가조형물로 추진하던 '천년의 문' 건립계획이 백지화될 위기에 놓였다.

문화관광부는 '천년의 문' 건립에 필요한 민자 유치계획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이 달말로 예정된 기공식을 갖지 않기로 최근 방침을 정했다. 문화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재단법인 '천년의 문' (이사장 신현중) 측에 15일까지 재원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제출토록 지시했다.

문화부 고위관계자는 14일 "당초 국고 지원 100억원과 국민성금 모금, 민자 유치 250억원 등 총 350억원을 들여 새천년 기념물을 건립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다"면서 "그러나 재단 측이 '천년의 문'으로 높이 200m짜리 원형 띠 모양의 조형물을 짓기로 결정하는

### 문화부 "오늘까지 民資유치 계획 못밝히면 백지화"

### 재단측 "국고보조 200억원 증액 약속부터 지켜야"

바람에 공사비 예상액이 200억원이나 늘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국고 100억원 외에는 더 이상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재단 측이 나머지 공사비 조달 계획을 확실히 밝히지 않으면 '천년의 문'을 세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단 측은 문화부가 국고 보조를 200억원으로 늘리기로 약속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은 채 민간유치 계획만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재단 측은 한 인사는 "지난해 '천년의 문'을 원형건조물로 짓기

로 확정된 뒤 박지윤 전 문화부장관 주재로 기획예산처 장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서울시장 등이 모여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국고 지원을 200억원으로 늘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면서 "문화부가 '천년의 문' 건립 계획을 백지화할 경우 당시 회의록을 공개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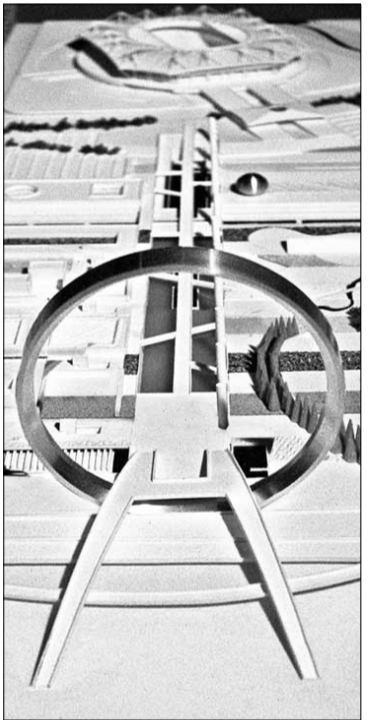
정부 내에서의 이같은 공방과 함께 민간 차원에서 '천년의 문' 건립을 놓고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

동'(공동대표 이필상 고려대 교수)은 지난해 12월 '천년의 문' 건립계획을 예산낭비 사례로 뽑아 '말뚝인 독 상(賞)'을 주면서 건립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한양대 손관중 교수(현대미술) 등 문화예술계 인사 150여명은 11일 한양대 체육대학 세미나실에서 '천년의 문' 건립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 결성대회를 갖고 "정부는 국가상징물로 '천년의 문'을 건립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천년의 문' 건립계획 자체가 취소될 경우 약속 불이행에 따른 정부의 공신력 추락과 함께 정부 안팎에서 책임 논쟁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김차수기자〉  
kimcs@donga.com



동아일보 사진  
국가조형물로 건립이 추진되다 백지화 위기에 놓인 '천년의 문' 조각도.

## 문화가

### 한국미술사 국제심포지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LA카운티 박물관(LACMA)이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후원으로 16일부터 3일간 '방법론의 성립-한국미술사의 여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한국 미술에 관한 대규모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미국내 동양미술사 연구에서 한국 미술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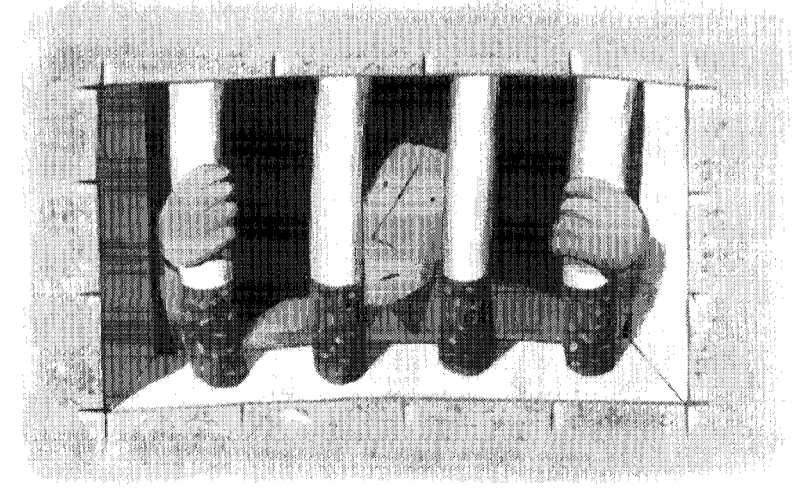
안휘준(서울대) 이성미(한국정신문화연구원) 김리나(홍익대) 유홍준(영남대) 윤용이(원광대) 정영민 교수(서울대) 등 국내외 미술사학자 및 박물관 관계자 30여명과, 카이스 윌슨(LACMA) 마이클 커닝

햄(클리블랜드박물관) 백금자(샌프란시스코 동양박물관) 기타이마 마비(오사카 동양도자미술관) 박영숙(런던대) 등 해외의 대표적인 한국 미술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가한다. www.lacma.org

### 맘피스트 유학생 모집

삼성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인재 발굴과 육성을 목적으로 한 맘피스트(Mampist) 프로그램 제6기생을 모집한다. 66년 이후 출생자가 대상. 선발요강 배포 및 응시원수 접수는 20일부 4월14일까지 서울 중구 순화동 중앙일보빌딩 20층 삼성문화재단 문화기획팀에서 실시한다. 분야는 서사 학위과정(미술-보존과학, 연극, 예술경영)과 실무전문과정(영상기술, 무대기술, 무용). www.mampist.org/02-750-7818, 78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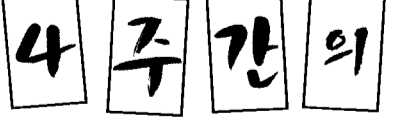
# 남편의 금연, 아내가 지키겠습니다.



남편의 머리카락에서 세월의 흔적들을 발견하면 아내의 마음속엔 파도가 일어납니다. 지친듯 피워 무는 한 대의 담배, 어쩌면 남편에게 따뜻한 휴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부쩍 몸이 부대간다며 건강을 위해, 하루가 다르게 커 가는 자식들을 위해 담배를 끊으려고 부단히 노력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 그때마다 잔소리만 했지 정말로 필요한 도움은 주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발입니다.

오늘, <4주간의 煙休>를 만났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아빠의 금연을 돕는 금연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는 금연풍선을 대달고, 아내는 금연식단으로 저녁을 준비합니다. 온 가족이 금연체조 비디오를 보며 함께 운동도 할 겁니다. 오늘 낮엔, 금연 카운슬러와 금연상담도 예약해 두었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당신 결연 우리가 있습니다.

###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금연 프로그램



① 4주 동안에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14종의 다양한 금연 보조 프로그램으로 금연 성공률을 높여 줍니다. 금연 목표 1, 2, 3, 4단계 / 금연체조 비디오 / 정전적 근육이완법 비디오 / 소리수련 카세트 / 이완-심상요법 카세트 / 금연스티커 / 금연카드 / 흡연일지 / 금연일기 / 금연일지 / 금연일지 / 금연일지 / 금연일지 / 금연일지 / 금연일지 / 금연일지

② 온 가족이 참여하는 즐거운 이벤트로 이끌어 갑니다. 아내는 '아빠의 금연일기'로서 금연일지, 금연일지 점검 등 반물라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금연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아빠의 '담배와의 전쟁'을 응원해 줄 겁니다.

③ 금연 카운슬러가 4주 동안 1대1로 도와드립니다.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 가운데 약 80%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공하게 금연을 시도하면 그만큼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금연 카운슬러가 4주 동안 충분한 상담을 통해 금연을 도와줄 것입니다.

④ 금연 카운슬러 지원모임 보건학, 심리학, 간호학 전공자 해당학과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문의 (02) 3141-2222

금연 프로그램 구입 및 상담 (02) 336-5004, 4주간의 煙休 홈페이지 www.smokingfree.co.kr